



3면

"尹정부 3년,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음 4월 1일) 제3732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이재명, 민주 대선 후보 최종 확정

득표율 89.77%로 본선행  
당 대선 경선 사상 최고치  
권리당원 등 90.32% 기록  
일반국민은 89.21% 득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득표율은 89.77%로 민주당 대선 경선 사상 최고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순회경선에서 이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권역별 순회 경선(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과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누적 득표율 89.77%를 기록하며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다. 김동연 후보는 6.87%, 김경수 후보는 3.36%로 각각 집계됐다.

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는 누적 득표율 90.32%를 기록했고, 이어 김동연 5.98%, 김경수 3.69% 순이었다.

일반국민 여론조사 득표율은 이재명 89.21%, 김동연 7.77%, 김경수 3.03%로 각각 집계됐다.

최종 후보는 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선거인단 투표(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50%)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선출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충청·영남·호남권 경선 내내 압승을 거뒀다.

지난 19일 이 후보는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 경선에서 88.15%로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김경수·김동연 경선후보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다음날인 20일, 그는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영남권 경선에서 90.81%를 득표했다.

지난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권 경선에서 이 후보는 무려 88.6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는 이날 마지막 경선지 수도권·강원·제주에서도 압도적 득표율(91.54%)을 기록했다. 김동연 후보는 5.46%, 김경수 후보는 3.01%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경선 사상 최고 득표율 기록을 세웠다.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 득표율은

50.29%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선 후보 당시 득표율은 19대 대선 57.0%, 18대 대선 56.5%였다.

이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오는 6월 3일 인수위도 없는 새 정부가 곧바로 출범한다"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유능한 선장,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성남을 경기도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어 보여드리겠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계승해서 네

번째 민주 정부를 확실히 수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기준은 오로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네 편 내 편이 아닌 국민의 편이 되겠다. 색깔, 지역 무관하게 유능함만 쓸 것"이라고 했다.

함께 경쟁한 김경수·김동연 경선후보에게도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후보는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고,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며 원팀을 이뤄 반드시 대선에 승리하자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김재훈 기자

## 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1주년 어린이 생명 지킴이 역할 '톡톡'

예수병원, 호남권 유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  
1년간 8736명 진료, 이 중 타시도 응급환자 597명 포함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4월 25일 전주 예수병원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개소한 이후, 1년간의 운영을 통해 도내 어린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응급의료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호남권 유일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전주 예수병원은 소아응급환자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365일 24시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과 전문 간호사 11명이 상주해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해왔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 현재까지 총 8,736명(월평균 728명)의 소아 응급환자가 내원했으며, 이 중 1,854명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 치료 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특히, 내원 환자 중 응급환자의 비율은 90% 이상에 달하며, 도내 환자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방문한 597명(6.8%)의 환자에게도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전북 도내의 소아 응급환자들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025년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예수병원, 9.6억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소아 응급환자가 야간과 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진료실(원광대병원, 5억원) 및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정읍아산병원, 1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도 기존 5개소



전주 예수병원에서 개소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에서 7개소로 확대해 더욱 촘촘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노창환 전북자치도 보건의료과장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전국적으로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병원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성실히 운영해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수병원이 안정적인 소아청소년 특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5월, 전주 전역서 펼쳐지는 문화예술 체험 향연

전주문화재단, 시민참여 프로그램 마련  
전통·공예·놀이·공연 등 행사 다채

20세기 미술의 거장 : 앙리 마티스와 라울 뒤피 특별전이 7월 27일까지 개최된다.

같은 공간에서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2025 전주호주문화주간'의 일환으로 호주 아트플레이와 협력한 어린이 대상 워크숍도 열린다. 5월

17일에는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에서 전주시립극단의 낭독극 '청개구리또또와 꾸러기들'이 공연돼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객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조리체험실에서는 5월 1일부터 2일까지 전주국

제영화제와 연계해 국내외 게스트를 대상으로 '전주비빔밥 체험'이 진행된다.

우리놀이터 마투달에서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우리놀이 스탬프 투어'가 운영된다. 참가자는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하며 스탬프를 모으고, 소정의 상품도 받을 수 있다. 이어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단오를 주제로 한 세시풍속 체험행사 '단오 행사'가 열린다.

공예품전시관에서는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2025 공예주간'이 펼쳐지며, 전시·체험·마켓·공방투어·공예이벤트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전주한옥마을 일대를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 공예의 다채로운 매력을 시민들과 나누게 될 예정이다.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2025 종지꽃놀이 대회'가 토너먼트 형식으로 운영된다. 전통놀이의 묘미를 체험하고, 우승자에게 상품도 증정된다.

한지산업지원센터 1층 체험실에서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한지 카페이

선 리스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전주천년한지관에서 4월 8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 '한지학당'이 열려, 전통한지 제조와 민화 그리기를 배울 수 있다. 5월 6일 하루 동안은 가족 단위 12팀을 대상으로 '우당탕 한지캠프'도 운영된다.

최락기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5월 한 달간 전주 곳곳에서 시민들이 일상 속 문화예술을 즐기고,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